

세계 석유시장 전망

이자료는 前 사우디 석유장관이며 현 세계 에너지 연구소(CGES) 소장인 Shaik Ahmad Zaki Yamani氏가 4월 6일 CGES런던회의에서 행한 연설문을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註>



아마드·자키 야마니
<前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

지금은 먼 기억이 되어버린 걸프전 이후, 석유업계는 현재 기다렸던 휴식을 즐기고 있다. 더우기 지난 2월에 어렵게 이끌어낸 OPEC(석유수출국기구) 합의로, 우려되던 유가하락도 저지한 것처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고무적인 것은 석유업계가 2/4분기의 통상적인 비수가 끝나면 석유수요가 증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금만 더 앞을 내다 보면, 내년에는 100만b/d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바로 100만b/d가 OPEC 수요증대로 연결된다. 이는 진정한 발전이다. 그런데 이 발전은 OPEC 수요증대의 2배 가량에 상당한 생산능력증대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더 환영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정당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추세에 대해 불평하여서는 안된다.

지금과 같이 조용한 시기에 상황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분명히 말하면, 유가불안은 비록 거래업자들이 이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석유생산자, 석유기업 및 석유 소비자같은 대부분의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다. 즉 석유 판매에 따른 收入의 감소 혹은 정체는 OPEC 산유국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반면, 유가 상승과 석유소비에 대한 과세는 모든 지역 소비자들에게도 불이익이 된다. 또한 고율의 석유소비세는 OPEC 산유국의 장단기이익에 배치된다. 따라서 나의 우려는 유가불안을 증대시키고 OPEC 收入을 감소시키며, 소비자에게 손해가 되는 세계 정책에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쉽게 설명될 수 있지만, 이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석유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동시에 OPEC의 석유 수출收入 증대를 확보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 대한 안정적인 가격으로 석유수요 증가를 창출할 수 있는가? 사실 이는 어려운 주문이지만 추구해 볼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그곳에 도착하는 방법이며, 좋은 출발점은 석유산업이 운영될 장래 환경을 고려하므로써 시작된다.

우리가 앞으로 7~8년간 기대해서는 안되는 것 중의 하나는 유가가 명목 가격 측면에서든 실질 가격 측면에서든간에 지속적이고 눈에 떨 만큼 상승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유가가 단기적으로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며, 제2의 걸프전이라도 발생하면 이런 예상은 빛나갈 것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상황하에서는 현재 및 잠재적인 석유공급과잉은 어떤 실질적인 유가 강세를 불가능하게 한다.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모든 OPEC 산유국들은 금세기 말까지 석유 생산능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일부국가들은 실제 이 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더우기 Ait-Laoussine 前 알제리 석유 장관이 언급하였듯이, OPEC 산유국들은 이제까지 가격에만 집중하여 쓰디쓴 교훈을 배웠다. OPEC는 가격하락방지를 위한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收入 규모의 증대에 민감해지게 되었다. 높은 생산능력은 산유국들에게 큰 교훈을 준다는 점을 잊지 말자.

내가 말하고자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대부분의 OPEC 산유국들은 잉여생산능력을 보유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 노력 할 것이다.

석유 수요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 이들 능력을 사용할 것이다. 장래에 관한 이런 조망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류부문의 국제적인 대형회사들이 현재 석유사업을 유가 19\$/B에 기초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주시기 바란다.

우리가 대비해야 할 또다른 상황은 이라크 석유의 시장복귀이다. 이는 93년중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이 내년 혹은 그 이후에 이뤄질

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다. OPEC는 실질가격기준으로 1995년부터 6년간 9백만b/d의 추가생산 능력을 증대할 필요성이 있다. 지구 온난화 억제라는 미명 아래 최종판매단계에서 석유에 대한 추가적인 소비자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상황은 OPEC의 추가 생산능력 필요성을 다소 위축시켜 버릴 수 있다. 만약 10\$/B의 세금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부과된다면, OPEC의 추가 생산 능력 증가는 9백만b/d가 아닌 5백30만b/d만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5백30만b/d만의 증산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나는 추가 생산능력 증강 비용이나 생산능력 수치보다는 앞으로 관심을 끌게 될 정책 논쟁점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OPEC은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생산 능력 확장의 자금 공급을 위해 석유의 추가 판매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 이는 석유에 대한 세금이 8년에 걸쳐 10\$/B 인상될 경우에도 그럴것이다. 따라서 나이지리아, UAE 및 인도네시아와 같이 지분 생산자들을 갖고 있는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OPEC 국가들이 선호하는 방법은 자체자금을 통한 석유 생산 능력확장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불공평한 위치에 처해있다.

만약 이들 국가들이 생산능력 확장을 통해 획득한 추가 석유수출 收入을 생산 능력확장에 배정해야 한다면 더 이상 경제개발에 더 많은 재원을 지출할 수 없을 것이다. 잉여 생산능력에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은 미래를 위해 건설하고 있지만 당장 사회문제의 악화라는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사실 自國民의 경제적 욕망을 달성시켜주는 문제 때문에 OPEC의 많은 국가들이 이제까지 괴로웠다. 경제발전은 종종 더더웠고,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더욱 불안해했다. 일부정책들은 추가생산능력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부족하면 체제 유지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는 외부의 위협에 대해 허약한 면을 보이게 할 것이다.

한편 OPEC 산유국들이 생산능력 확장에 자금 지출을 하지 않거나 재정상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90년대 중반 이후 어떤 시점에 심각한 유가급등이 발생할 것이다. 나는 과거에도 여러 차

레 말한바 있지만,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이는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며, 80년대 중반 이후 누려온 실질유가 하락이 석유 수요에 미치는 재정상의 영향을 장기간에 걸쳐 원상태로 돌려놓을 것이다.

그러면 OPEC 국가들은 무엇을 해야하는가? 만약 OPEC 국가들이 생산능력 확장에 의하여 전진한다면 이는 국민들의 재정상의 욕망을 향상시켜 결국 나중에 이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만약 OPEC 국가들이 현재의 상태에 머무른다면 자신들의 장기적인 이익을 해칠 석유 위기를 촉진시킬 것이다.

내의견으로는 이런 어려운 정책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이상의 두가지중 심각한 문제를 피해버리는 것이다. 즉 유가 급등 위험을 피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정책 대안들이 고려될 수 있다. 공공지출, 특히 군비분야에 대한 지출 수준이 축소될 수 있다. 이는 나로 하여금 최근 주요 OPEC 국가 국영석유사 사장들의 언급을 상기시킨다. 즉 「석유는 경제의 원동력이지만, 석유는 그 스스로 공공 지출 증대에 자금을 계속 공급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대체 收入源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석유 산업 收入을 계속 증가하는 정부 지출에 사용하는 관행은 일부 OPEC 국가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와는 달리 소득세를 인상하거나 소득세가 없는 OPEC 산유국에서 소득세를 실질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 석유에 대한 소비세 인상 방안도 촉구될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OPEC 산유국들, 특히 인도네시아와 알제리같이 국내 석유 소비급증은 수출가능 잉여 석유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非石油분야 收入을 증가시키고 정부 지출을 축소하므로써, 정부는 일반 목적을 위해 석유 산업 자금을 사용할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추가 생산능력 투자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석유 收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대안으로 정부의 국내외 차입을 증대하고 회

원국 석유산업에 대한 외국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지분참여」에 관하여 나는 CGES가 「전략적 적응」(Strategic fit)이라고 부르는 방안을 언급하여 이에 가름하고자 한다. 주요 걸프지역에는, 풍부한 석유 자원을 갖고 있지만 이를 개발할 자금이 부족한 많은 산유국이 있다. 사실 이런 자금 부족은 걸프전이 끼친 간접적인 재정상의 영향에 의하여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비해 대규모 자금력을 지닌 수많은 메이저 석유회사들도 있다. 이들 회사들은 의심할 바 없이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지역에서의 석유탐사 기회를 환영할 것이다. 이런 사실로부터 나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전략을 여러분들이 숙고해 볼 것은 원한다. 91년중 세계 9대 석유회사들의 상류부분 자본지출중 19%만 있으면 OPEC의 생산능력 증대에 필요한 전체 자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사실 이런 「전략적 적응」의 두 필수요소를 결합할 수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국제 사회는 이상의 문제를 OPEC 단독으로 해결하리라고 기대하지 말 것을 덧붙이고자 한다. 즉 OPEC 산유국들이 추가생산능력을 건설할 수 없어서 걸프전과 같은 위기가 발생할 때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면 다른 국가의 정치·사회조적을 손상시킬 수 있다. 유가안정은 오직 OPEC만의 책임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소비국의 석유에 대한 세금인상과 고율의 세금부과를 의미한다.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주요 사항은 유가 안정은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안정적인 석유 수요 증가가 필요하지, 등락이 심한 유가변동을 원치 않는다. 치명적인 유가 상승을 막기 위해 산유국의 안정적인 판매가격과 소비국의 안정적인 석유과세 및 적절한 잉여 생산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잉여 생산능력의 적정 수준은 조달가능한 자금이 달려 있으며, 적절한 정책을 추구하는 산유국 정부에 달려있다. 산유국 정부의 정책은 소비국 정부의 석유제품에 대한 과세를 지도할 필요가 있다. ♣

<MEES, 93. 4. 12>